"이 풍경 매일 보고 싶다…무등산 정상 시민 품으로"

2년만에 무등산 정상 개방

"광주 시민들의 산 무등산을 언제까지 '일부 개 방'으로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국립공원공단도 시 민 의견 수렴도 않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지어대는데, 무등산은 언제쯤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9일 무등산에서 열린 정상(천왕봉·지왕봉) 개방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등산 정상에서 탁 트인 광주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며 기쁨을 만끽하면서 도,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무등산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머니의 산'으로 통하는 것이 무색하게 군 부대는 60년 동안 정상을 통제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제멋대로' 시설물을 지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무등산을 두고 "과연 누구의 산이냐"는 씁쓸한물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등 산 정상 개방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국가AI 컴 퓨팅센터 유치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진행 됐다.

이날 원효사 옛길을 따라 산행에 나선 시민 3800 여 명은 서석대를 거쳐 지왕봉에 도착해 정상의 풍 경을 만끽했다. 곳곳에서는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반달가슴곰과 수달 캐릭터 '반달이·달콩이' 인형을 들고 사진을 찍는 등 무등산 사랑을 여실히 드러낸 이들도 눈에 띄었다.

2년만에 열린 개방 행사로 무등산은 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경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로 북적였지 만, 시민들은 곳곳에 설치된 철조망, 위장망으로 가 려진 군장비 등 군시설물 그리고 인공구조물에 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사진 촬영 도 정해진 곳에서만 가능했으며, 동영상 촬영도 제 한돼 시민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천왕봉은 방공포 대가 있어 접근과 촬영 모두 불가능했고, 지왕봉 앞 가족·친구 등 3800여명 찾아 탁 트인 풍광 속 가을 정취 만끽 방공포대 주둔에 동영상 촬영 안돼 주변 환경과 부조화 화장실 눈살도 군공항 이전 발맞춰 기지 옮기고 시민 누구나 쉽게 오르는 산 되길

에도 군시설물이 설치돼있어 기념촬영을 하던 시민 들도 카메라 화면에 시설물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 해 노심초사해야 했다. "이쪽은 사진 촬영하시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중간중간 울려퍼졌다.

행사에 참여한 조요셉(66)씨는 "비로소 어머니 품에 안긴 기분이지만 여전히 부대가 차지하고 있 다는 게 안타깝다"며 "민관이 협력해 진정한 개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수(46)씨도 "도심이 품은 산 중 이렇게 아름 다운 산이 드문데, 온통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군사적 가치가 떨어진 방공포대를 더 이상 정상에 놔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 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상절리 등 무등산만의 지형을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공원 곳곳에 시민 의견수렴 과정조차 없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건축물이 세워진 데〈광주일보 7월 9일 7면〉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입석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불재 쉼터에도 등 반 중 지친 등산객들이 모여들어 물을 마시고 '인생 샷'을 남기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지만 평탄한 지대 위 놓인 화장실 건축물은 반대편 은빛 억새 풍 광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족 5명과 함께 정상에 오른 뒤 더위를 식히던 선남영(65)씨는 "30년만에 정상에 와봤는데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광주시와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가 열린 9일 시민들이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가을 산행을 즐기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무등산이 갖는 세계적 지질공원이 현자

무등산은 방공포대 기지가 1966년 무등산 천왕 봉에 설치된 이후 59년 여 동안 주둔하면서 정상부 출입이 통제돼 왔다. 공군은 1985년까지 무허가로 부지를 사용했으며, 이후 광주시로부터 1995년까 지는 10년 단위, 그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를 받으며 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가치를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현재는 기술 발달로 고지대 주둔의 필요성이 줄 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부대 이전은 아직 추 진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방공포대도 연계 이전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날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을 오른 강기정 광주 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면 즉각 이곳 의 방공포대는 옮겨가도록 준비가 끝나 있다"며 "광 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조속히 매 듭짓고 더불어 이 방공포대가 이전하고 정상부가

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무등산 정상 개방은 이날을 포함 해 총 27회 진행됐으며, 49만여명의 탐방객이 방문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을 시민들이 갖도록 하겠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소송 2건 항소 포기

정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 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사건과 관련해 항 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피해자들은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혐의를 뒤집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당하고 군법회의에 넘겨져 살해당했으며, 1949년 전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때 희생당한 피해자 수만 1만 1131명에 달한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순사건 희생

자 유족 1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들 에게 총 33억47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 다. 서울중앙지법도 피해자 24명에 대해 같은 취 지로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 청교육대 등 국가배상책임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 하거나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한청소년개척 단 국가배상소송 항소도 포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형 사건·사고 없어…추석 연휴 평온했다

광주·전남 112 신고·교통사고 건수도 전년보다 크게 줄어

올 추석 광주·전남에서는 일 평균 112 신고, 교 통사고 건수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며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연휴가 이어진 것으로 나 타나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추석 명절 연휴 주 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일 평균 112 신고 건수는 광주·전남 모두 전년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중요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7% 줄었으며, 전남에서도 절도 건수 일평균 22건(전년 24.4건), 폭력 건수 45.2건(전년 62.6건) 등 중요 범죄 발생 건수가 낮아졌다.

연휴 때마다 급증했던 교통사고 건수도 광주 일 평균 7.1건을 기록해 전년(16.6건) 대비 57.2% 줄어들었다. 전남에서도 교통사고 건수가 일평균 13.8으로 전년(20건) 대비 31% 줄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광주경찰청은 편의점·금은 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1914곳, 전통시장 24곳 등지에 경찰 924명을 배치해 범죄 예방 활동을 했 다.

전남경찰청은 귀성·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 잡에 대비해 191개 구간에 암행순찰차와 경찰관 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입학생 10명 이하학교 2335곳 전남 360곳으로 최다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가 23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 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335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기준 전남이 36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346곳), 강원(272곳), 충남·경남(250곳) 순이었다.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학년도 1939곳에서 2023학년도 1858곳으로 다소 줄었다가 2024학년도 1878곳, 2025학년도 1901곳으로 계속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기준 전남 323곳, 경북 304곳, 전북 270곳, 강원 252곳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